

쏠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현황

- 쏠 금융권 및 연기금 등(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의 '26.2월말 기준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각각 30.5조원 및 25.4조원 수준
- 총자산(운용자산) 대비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쏠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1 | 개황 및 추이

'25년 4분기 이후 미국발 사모대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쏠 금융권 및 연기금 등(운용규모 상위 연·기금 및 주요 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26.2월말 기준 해외 사모대출 투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금융권 투자 규모는 30.5조원, 연기금 등의 투자 규모는 25.4조원으로 파악되었다.

'23년말 이후 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금융권의 경우 최근 해외 사모대출 투자 관련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26년 중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연도말 해외 사모대출 투자 잔액 (단위 : 조원, %)

구분	'23말 (A)	'24말	'25말	'26.2말 (B)	(비중)	증감(B-A)	증감률 ((B-A)/A)
연기금 등	16.3	18.9	25.1	25.4	45.4%	9.0	55.3%
전 체	40.7	46.3	55.9	55.9	100.0%	15.2	37.2%

※ [참고]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 조사 범위

□ (대상 기관) 쏘금융권, 운용규모 상위 연기금 및 주요 공제회*, 한국투자공사 등

* 연기금(5개)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공제회(9개) : 한국교직원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등

□ (조사 범위) '26.2말 기준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 및 지역별·업종별 현황*

* 다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주된(예; 50% 이상 등) 투자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외 사모대출 펀드 등이 다수의 피투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 주된 투자 건의 업종별 비중을 기준으로 분류 (해외 투자 정보 수취에 시차가 존재하여 상세 현황의 경우 활용 가능한 최최근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

○ (투자 규모) 해외 사모대출 펀드*, BDC, CLO 등의 평가액** 기준

* 해외 사모대출 투자를 주된(예; 50% 이상 등) 투자전략으로 하는 펀드 등

** 다만, 일부 연기금, 공제회는 취득원가(투자 집행액) 등을 기준으로 제출

※ IMF(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4)는 펀드, 기업성장기구(BDC) 및 대출 담보부증권(CLO) 등이 해외 사모대출 시장에서 투자자와 차입자간 자금을 중개한다고 설명

○ (지역별) 미국, 유럽, 기타 지역 등으로 구분

○ (업종별) IT, 헬스케어, 산업재, 소비재, 소재, 그 외 업종 등

2 금융권 현황

'26.2월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30.5조원이며, 금융권 총자산 합계('25년말 기준) 대비 투자 규모 비중은 0.4%로 낮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보험이 20.6조원(67.4%)으로 가장 크며, 상호금융(중앙회)* 4.7조원(15.2%), 증권 2.8조원(9.3%), 은행 2.0조원(6.5%) 등의 순이었다.

* 농협, 수협, 신협, 산림, 새마을금고 등 5개 중앙회 기준

권역별 총자산* 대비 해외 사모대출 투자 비중(단위 : 조원, %)

구분	합계	보험	상호**	증권	은행	여전	자산 운용	저축 은행
'26.2말 투자 규모[A]	30.5 (100%)	20.58 (67.4%)	4.65 (15.2%)	2.84 (9.3%)	1.97 (6.5%)	0.40 (1.3%)	0.07 (0.2%)	0.01 (0.0%)
권역별 총자산[B]	7,315.3	1,348.0	323.2	944.4	4,106.5	451.4	24.0	117.9
대비 [A/B]	0.42%	1.53%	1.44%	0.30%	0.05%	0.09%	0.28%	0.01%

* 총자산은 '25년말 업무보고서 기준, ** 총자산은 중앙회 기준 총자산

투자 지역별 비중은 미국 58.4%, 유럽 30.7%, 기타 지역 10.9%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외의 경우 IT 업종에 대한 지나친 편중*이 사모대출 투자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 것에 반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중 IT 업종 비중은 14.8%로 높지 않았다.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는 전체 투자 규모의 9.8% 수준이었다.

* 글로벌 사모대출 거래 IT 업종 비중: 41%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4)

3 연기금 등 현황

'26.2월말 기준 연기금 등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25.4조원이며, 연기금 등의 전체 운용자산 합계('25년말 기준) 대비 해외 사모대출 투자 비중은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투자 지역별 비중은 미국 63%, 유럽 32%, 기타 지역 5% 등의 순이었으며, IT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1.8% 수준이었다.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는 전체 투자 규모의 4.7%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4 평가 및 향후 계획

금융권의 경우 해외 사모대출에 투자 중인 금융회사가 일부에 한정되고, 총자산 대비 비중*이 미미(0.4%)하며, 개방형 투자 비중(9.8%)이 높지 않아 환매 급증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크지 않고, IT 업종 투자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양호(14.8%)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외 사모대출 투자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로 코로나 이후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로 집계해 온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55.1조원, '25.9월말 기준)와 비교할 때에도 55% 수준에 불과

연기금 등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또한 운용자산 대비 비중(1.2%)이 높지 않고, 투자 지역 및 차주 업종 비중 등이 금융권과 대체로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 미국 투자 비중 및 IT 업종 투자 비중 등은 금융권 대비 소폭 높았으며, 개방형 투자 비중의 경우 금융권 대비 양호

정부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소관 기관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현황에 대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인욱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이경배 (02-2100-2851)
	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장호 (044-215-2755)
	금융감독원 감독혁신국	책임자	국 장	최정환 (02-3145-8300)
		담당자	팀 장	최범전 (02-3145-8001)